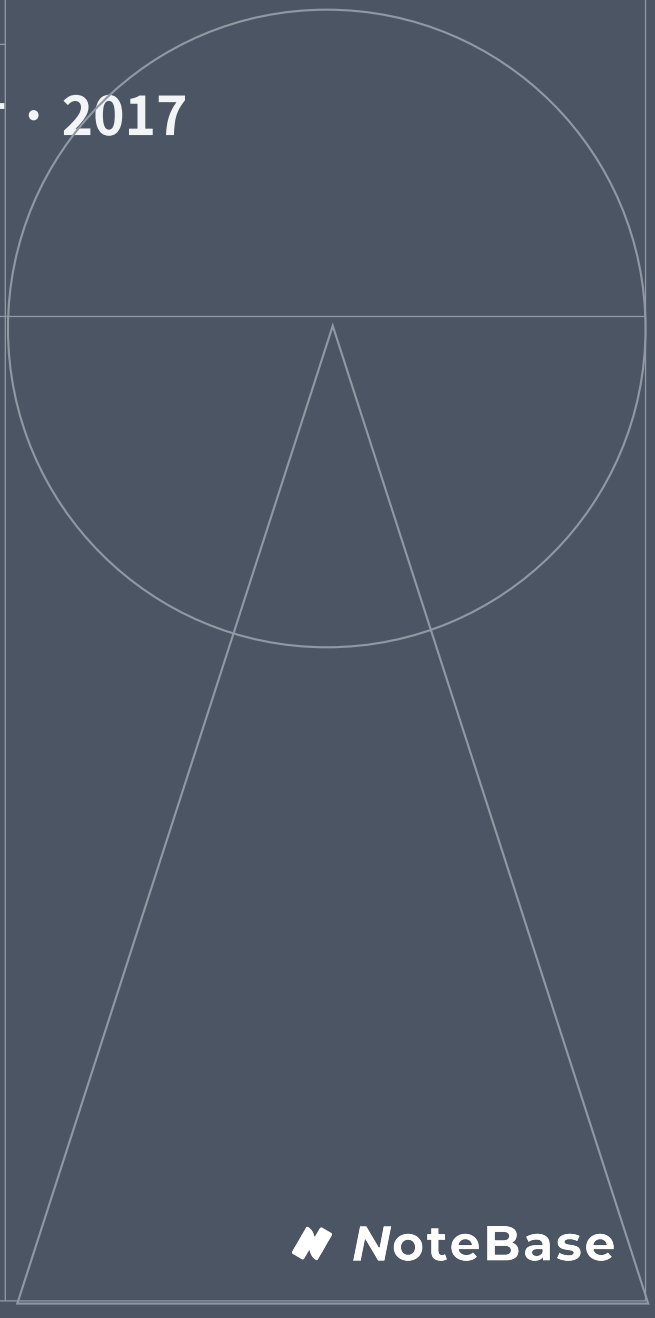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회계학 · 2017



NoteBase
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회계학 · 2017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회계학 · 2017

문 1. (주)서울의 재무상태표상 각 계정별 2017년 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. 그리고 2017년 말 부채총계는 2017년 초 부채총계보다 ₩300,000만큼 더 크고, 2017년 말 자본총계는 2017년 초 자본총계보다 ₩150,000만큼 더 작다. 이를 토대로 (주)서울의 2017년 초 자산총계를 구하면 얼마인가?

상품	₩700,000	선수수익	₩250,000
차입금	₩1,100,000	미수금	₩200,000
현금	₩900,000	매출채권	₩500,000
선수금	₩450,000	대여금	₩600,000

① ₩2,750,000

② ₩2,900,000

③ ₩3,150,000

④ ₩3,325,000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, 부채가 300,000원 늘고 자본이 150,000원 줄면 자산은 **150,000원 증가**한다. 연초 자산은 연말 자산 2,900,000원에서 증가액을 뺀 2,750,000원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1. 2017년 말 자산총계
표에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은 상품 700,000원, 현금 900,000원, 미수금 200,000원, 매출채권 500,000원, 대여금 600,000원이다. 합계는 700,000 + 900,000 + 200,000 + 500,000 + 600,000 = 2,900,000원이다. 차입금·선수금·선수수익은 **부채이므로 자산 합계에서 제외**한다.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대가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나타낸다.

2. 2017년 중 자산의 증감
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총계 = 부채총계 + 자본총계가 성립한다. 따라서 자산의 증감액도 부채의 증감액과 자본의 증감액을 합하여 구한다. 부채는 연초보다 300,000원 증가했고 자본은 150,000원 감소했으므로, 자산은 300,000 − 150,000 = 150,000원 증가했다. 이는 **연말 자산이 연초 자산보다 150,000원 많다**는 뜻이다.

3. 2017년 초 자산총계
연말 금액에서 연중 증가액을 빼면 연초 금액이 된다. 따라서 2017년 초 자산총계는 2,900,000 − 150,000 = 2,750,000원으로,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2.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의 (주)서울의 예상 상품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.
매월 기말재고액은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50%이며, 상품의 매출총이익률은 40%이다. (주)서울의 3월 예상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?

월별	예상 매출액
2월	₩460,000
3월	₩500,000
4월	₩400,000

① ₩270,000
② ₩280,000
③ ₩290,000
④ ₩300,000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3월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**기말재고액을 더하고 기초재고액을 뺀 금액**이다. 따라서 300,000 + 120,000 − 150,000 = 270,000원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매출원가 계산: 매출총이익률 40%는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므로, **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%**이다. 표의 3월 매출액은 500,000원, 4월 매출액은 400,000원이므로 예상 매출원가는 각각 500,000 × 60% = 300,000원, 400,000 × 60% = 240,000원이다.

3월 기초재고액: **3월 기초재고는 2월 기말재고**이다. 매월 기말재고액은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50%이므로, 2월 기말재고액은 3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따라서 3월 기초재고액은 300,000 × 50% = 150,000원이다.

3월 기말재고액: 3월 말에 보유할 재고는 **4월 예상 매출원가**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따라서 3월 기말재고액은 240,000 × 50% = 120,000원이다.

3월 예상 매입액: 기초재고와 당월 매입 상품은 당월에 판매되어 매출원가가 되거나 기말재고로 남는다. 따라서 매출원가에 기말재고액을 더해 필요한 상품 총액을 구한 뒤, **이미 보유한 기초재고액을 차감**한다. 3월 예상 매입액은 300,000 + 120,000 − 150,000 = 270,000원으로,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3. 다음 중 개별 자산의 손상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,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.

②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.

③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.

④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 무형자산은 **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거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**이다.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손상 징후가 있을 때 검사한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,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. **손상 징후의 검토와 회수가능액의 추정**은 구별된다. 일반적인 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징후를 검토하지만, 징후가 없으면 회수가능액을 매번 추정할 필요는 없다.

② O: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.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고,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.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은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, **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**하고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.

③ X: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무형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한다.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**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**과 **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**이다. 따라서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손상검사를 의무화한 부분이 잘못되었다.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더라도 매년 검사한다.

④ O: 재평가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. 구체적으로 **동일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**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줄이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. 따라서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손상차손 전액을 항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뜻은 아니다.

NoteBase

문 4. (주)서울은 20×1년 초에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 ₩30,000을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서, 잔존내용연수 5년, 잔존가액 ₩0,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. 또한 20×1년 초에 취득한 비품 ₩20,000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, 동 비품은 잔존내용연수 4년, 잔존가액 ₩0,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어야 옳았다. 다음 중 두 오류의 수정이 20×2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? (단, 이러한 오류는 중대하며 20×2년도 장부는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다.)

① ₩1,000 증가

② ₩1,000 감소

③ ₩11,000 증가

④ ₩11,000 감소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수선비의 잘못된 감가상각비 6,000원을 제거하고 비품의 누락된 감가상각비 5,000원을 인식하므로, 20×2년 순이익은 **1,000원 증가**한다. 중대한 전기오류의 20×1년 손익 영향은 20×2년 손익이 아니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.

계산 과정

수정의 기준: 두 오류는 중대한 전기오류이므로 20×1년 손익에 미친 영향은 소급하여 수정하고, 20×2년 장부에서는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. 따라서 20×2년 순이익의 변동은 **20×2년에 잘못 반영되거나 누락된 감가상각비**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당기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으므로 이 감가상각비는 당기 비용에서 바로 수정한다.

수선비의 자산 처리 오류: 수선비 30,000원은 20×1년의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한다.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으므로 매년 $\frac{30,000-0}{5}$ = 6,000원의 감가상각비가 잘못 계상된다. 20×2년에는 이 수선비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없어야 하므로, **감가상각비 6,000원을 제거**하면 순이익이 6,000원 증가한다.

비품의 비용 처리 오류: 비품 20,000원은 자산으로 인식한 뒤 잔존가액 0원,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. 연간 감가상각비는 $\frac{20,000-0}{4}$ = 5,000원이다. 취득 시 전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20×2년 감가상각비가 누락되었으므로, **감가상각비 5,000원을 추가**하면 순이익이 5,000원 감소한다.

순이익의 순변동: 6,000원 증가 − 5,000원 감소 = 1,000원 증가이다. 따라서 두 오류를 수정하면 20×2년 순이익은 1,000원 증가하며, 이는 ①의 금액과 방향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5. 2017년에 영업을 시작한 ㈜서울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2017년 당기착수량은 100개, 기말재공품은 40개(완성도 50%), 당기투입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가 각각 ₩10,000과 ₩24,000이다. 직접재료원가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.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?

① ₩9,600

② ₩10,000

③ ₩11,000

④ ₩12,000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에도 **100%**를, 균등하게 발생하는 가공원가에는 **완성도 50%**를 적용한다. 기말재공품에 배분되는 직접재료원가 4,000원과 가공원가 6,000원을 합하면 10,000원이다.

계산 과정

완성품 수량: 2017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기초재공품은 없다. 당기착수량 100개 중 기말에 남은 재공품이 40개이므로 완성품은 100 − 40 = 60개이다. 완성품환산량은 재공품에 투입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값이며, 원가요소별 투입 정도에 따라 따로 계산한다.

직접재료원가: 직접재료는 **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**되므로 완성품 60개와 기말재공품 40개 모두 재료 투입률이 100%이다. 직접재료의 완성품환산량은 60 + 40 = 100개이며, 환산량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(10,000)/(100) = 100원/개이다. 따라서 기말재공품에 배분되는 직접재료원가는 40 × 100 = 4,000원이다.

가공원가: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에는 **완성도 50%**를 적용한다.
기말재공품 40개의 가공 작업량은 완성품 40 × 50% = 20개에 해당한다. 따라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60개를 더한 60 + 20 = 80개이며,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는 (24,000)/(80) = 300원/개이다.
기말재공품에 배분되는 가공원가는 20 × 300 = 6,000원이다.

기말재공품 원가: 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합하면 4,000 + 6,000 = 10,000원으로,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6. (주)서울은 장기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. 2017년도에 계약금액 ₩20,000의 사무실용 빌딩 건설계약을 하였다. 2017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30%, 당기에 인식한 공사이익의 누계액은 ₩1,500이고 추정 총계약원가는 ₩15,000이다. 또한, 2018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60%, 지금까지 인식한 공사이익의 누계액은 ₩2,400이고 추정 총계약원가는 ₩16,000이다. 2018년도에 발생한 계약원가는 얼마인가?

① ₩4,500

② ₩5,100

③ ₩6,000

④ ₩9,600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진행기준에서는 누적 공사수익에서 누적 공사이익을 빼면 **누적 계약원가**가 된다. 2018년 말 누적 계약원가 9,600원에서 2017년 말 누적 계약원가 4,500원을 차감하면 **2018년 발생 계약원가는 5,100원**이다.

계산 과정

진행기준에서는 계약금액에 보고기간 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누적 공사수익을 구한다. 공사이익은 공사수익에서 계약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, **누적 공사수익에서 누적 공사이익을 빼면** 그때까지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구할 수 있다.

2017년 말: 계약금액은 20,000원이고 진행률은 30%이므로 누적 공사수익은 20,000 × 30% = 6,000원이다. 여기에서 누적 공사이익 1,500원을 빼면 누적 계약원가는 6,000 − 1,500 = 4,500원이다. 계약을 시작한 해이므로 이 금액이 2017년 발생 계약원가이다.

2018년 말: 진행률은 60%이므로 누적 공사수익은 20,000 × 60% = 12,000원이다. 여기에서 누적 공사이익 2,400원을 빼면 누적 계약원가는 12,000 − 2,400 = 9,600원이다. 이 금액에는 **2017년과 2018년의 계약원가가 모두 포함**되어 있다.

2018년 발생 계약원가: 2018년 말 누적액에서 전년 말 누적액을 차감하면 9,600 − 4,500 = 5,100원이다. 이는 ②의 5,100원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7. (주)서울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의 대손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?

· 2017년 초의 매출채권 잔액은 ₩1,000,000이고, 대손충당금 잔액은 ₩40,000이다.
· 2017년 4월에 회수불가능 매출채권 ₩30,000을 대손처리하였다.
· 2016년에 대손처리하였던 매출채권 ₩15,000을 2017년 7월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.
· 2017년 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₩900,000이며, 이 중에서 5%는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.

① ₩0
② ₩15,000
③ ₩20,000
④ ₩35,000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기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5%인 45,000원이 되어야 한다. 대손처리와 과거 대손채권의 회수를 반영한 충당금 잔액이 25,000원이므로, **부족액 20,000원**을 2017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.

계산 과정

대손처리 후 충당금: 기초 대손충당금은 대변 잔액 40,000원이다. 4월에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 30,000원을 대손처리하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함께 줄인다. 이미 설정한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**이때 대손상각비를 다시 인식하지 않는다**. 대손처리 후 충당금 잔액은 40,000 − 30,000 = 10,000원이다.

과거 대손채권 회수 후 충당금: 2016년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15,000원을 2017년 7월에 회수하면, 먼저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각각 15,000원 복구한 뒤 현금 회수로 매출채권을 없앤다. 따라서 **대손충당금은 15,000원 증가**하며, 기말 조정 전 충당금 잔액은 10,000 + 15,000 = 25,000원이다.

기말에 필요한 충당금: 기말 매출채권 900,000원 중 5%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,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900,000 × 5% = 45,000원이다. 이는 당기 비용 자체가 아니라 **기말에 남아 있어야 할 충당금 잔액**이다.

대손상각비: 필요한 기말 충당금에서 조정 전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 설정한다. 45,000 − 25,000 = 20,000원이므로, 대손상각비를 차변에,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각각 20,000원 기록한다. 2017년 대손상각비는 20,0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8. (주)서울은 2018년 1월 초에 기계장치를 ₩1,000,000에 구입하였다.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. (주)서울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도 말에 자산재평가를 한다. 2018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₩1,040,000이다.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 방법에 의할 경우 (주)서울이 2018년도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?

① ₩40,000

② ₩100,000

③ ₩200,000

④ ₩240,000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와 **감가상각 후 장부금액**의 차액이다. 2018년 말 장부금액은 800,000원이므로, 공정가치 1,040,000원과의 차액 240,000원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.

계산 과정

1. 2018년 감가상각비: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. 연초에 취득하였으므로 1년분을 반영하며, 감가상각비는 $\frac{1,000,000-0}{5}=200,000$원이다.

2.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: 취득원가에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다. 따라서 **재평가 전에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**한 장부금액은 1,000,000 − 200,000 = 800,000원이다.

3. 감가상각누계액 전액 제거: 감가상각누계액 200,000원을 기계장치의 총장부금액 1,000,000원과 상계하여 제거한다. 이때 기계장치 금액은 800,000원, 감가상각누계액은 0원이 되며, **순장부금액은 800,000원으로 유지**된다.

4. 재평가잉여금: 제거 후 장부금액을 연말 공정가치 1,040,000원으로 조정하므로 증가액은 1,040,000 − 800,000 = 240,000원이다. 취득 후 첫 재평가로 과거 재평가손실의 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, 증가액 전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.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240,000원으로 ④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9. (주)서울은 20×1년 10월 1일에 연구개발용 설비를 ₩100,000에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₩40,000의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. (주)서울은 동 설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₩0,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.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원가차감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에, 20×2년도 동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기말장부금액은 각각 얼마인가?

① 감가상각비: ₩12,000, 기말장부금액: ₩45,000

② 감가상각비: ₩12,000, 기말장부금액: ₩75,000

③ 감가상각비: ₩20,000, 기말장부금액: ₩45,000

④ 감가상각비: ₩20,000, 기말장부금액: ₩75,000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**60,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**한다. 20×2년 감가상각비는 12,000원이며, 전년도 3개월분까지 누적한 감가상각액 15,000원을 차감하면 기말장부금액은 45,000원이다.

계산 과정

감가상각 기준금액: 원가차감법은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을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, 그 효과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영하는 방법이다. 따라서 취득 시 장부금액은 100,000 − 40,000 = 60,000원이다.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**감가상각대상금액도 60,000원**이다.

20×2년 감가상각비: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배분한다. 연간 감가상각비는 $\frac{60,000-0}{5} = 12,000$원이다. 20×2년은 **1년 전체**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므로 12,000원이다.

20×1년 감가상각비: 취득한 해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**3개월분만** 반영한다.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$12,000 \times \frac{3}{12} = 3,000$원이고, 20×1년 말 장부금액은 60,000 − 3,000 = 57,000원이다.

20×2년 기말장부금액: 전년도 말 장부금액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57,000 − 12,000 = 45,000원이다. 이는 정부보조금 차감 후 금액 60,000원에서 **전년도와 당기의 누적 감가상각액** 15,000원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.

따라서 20×2년 감가상각비 12,000원과 기말장부금액 45,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1. (주)서울은 공정가액이 ₩190,000인 신기계장치를 인수하고 현금 ₩60,000과 장부가액이 ₩120,000(취득원가 ₩135,000, 감가상각누계액 ₩15,000)인 구기계장치를 제공하였다. 단, 구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₩130,000이며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한다. 신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?

① ₩120,000

② ₩130,000

③ ₩180,000

④ ₩190,000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므로 **구기계장치의 공정가액과 지급한 현금**을 합하여 신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구한다. 130,000원 + 60,000원 = 190,000원이다.

계산 과정

측정 기준: 유형자산 교환에 **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**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. 이 문제에서는 구기계장치의 공정가액 130,000원에 추가 지급한 현금 60,000원을 더하여 신기계장치에 지급한 대가를 구한다.

장부가액과의 구분: 구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135,000원 − 15,000원 = 120,000원이다. 이는 기존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이며, 이번 교환에서 제공한 기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**공정가액 130,000원**이다.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10,000원은 구기계장치의 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.

취득원가 계산: 신기계장치의 취득원가 = 130,000원 + 60,000원 = 190,000원이다. 이는 문제에 주어진 신기계장치의 공정가액과도 같으며, ④의 190,000원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2. 다음 거래로 인한 당기총자본의 증가 금액은 얼마인가?

☒ 주식 100주를 주당 ₩10,000에 현금 발행하였다.
☒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₩9,000에 현금 취득하였다.
☒ 위 자기주식 가운데 5주를 주당 ₩10,000에 현금 재발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하였다.
☒ 주식발행초과금 ₩100,000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주식을 발행하였다.

① ₩910,000
② ₩960,000
③ ₩1,010,000
④ ₩1,060,000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주식 발행과 자기주식 거래에서 생긴 자본 증감액은 1,000,000 − 90,000 + 50,000 = 960,000원이다. **자기주식 소각과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**은 자본 내부의 항목만 바꾸므로 총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총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. 주주와의 거래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부채가 변하지 않으면 그만큼 총자본이 증감한다.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**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**이다.

주식 발행: 100주 × 10,000원 = 1,000,000원의 현금이 유입되므로 총자본이 1,000,000원 증가한다. 발행대금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총자본 증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자기주식 취득: 10주 × 9,000원 = 90,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. 취득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므로 총자본이 90,000원 감소한다.

자기주식 재발행: 5주 × 10,000원 = 50,000원의 현금이 유입되므로 총자본이 50,000원 증가한다. 이 중 45,000원은 재발행한 5주의 취득원가로서 자기주식 차감액을 없애는 금액이고, 나머지 5,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에 가산된다. 따라서 총자본 증가액은 **처분이익만이 아니라 재발행대금 전액**이다.

남은 자기주식 소각: 남은 5주의 취득원가는 45,000원이다. 소각할 때 자기주식 차감액을 없애는 효과와 자본금 등 다른 자본 항목을 조정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. 추가 현금 유출도 없으므로 **총자본의 증감은 0원**이다. 취득할 때 이미 반영한 자본 감소를 소각할 때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.

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: 주식발행초과금이 100,000원 감소하고 자본금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.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주식을 발행해도 총자본의 증감은 0원이다.

당기총자본 증가액은 1,000,000 − 90,000 + 50,000 + 0 + 0 = 960,000원으로,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13. (주)서울의 경리부장은 2017년의 당기순이익이 ₩15,000,000이라고 사장에게 보고하였다. 사장은 경리부장의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의 회계처리상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. 이를 기초로 (주)서울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?

☒미지급비용의 과소계상액 ₩1,000,000
☒미수수익의 과소계상액 ₩800,000
☒기초상품의 과소계상액 ₩700,000
☒기말상품의 과대계상액 ₩400,000

① ₩13,700,000
② ₩14,500,000
③ ₩14,800,000
④ ₩15,100,000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누락된 수익은 더하고, 누락된 비용과 재고 오류로 적게 잡힌 매출원가는 빼야 한다. 순수정액은 **1,300,000원 감소**이므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3,700,000원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보고된 2017년 당기순이익 15,000,000원에 각 오류의 수정 효과를 반영한다.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, 수익을 추가하면 증가하고 비용을 추가하면 감소한다.

미지급비용: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. 미지급비용 1,000,000원을 과소계상하면 당기 비용도 그만큼 적게 반영되어 이익이 크게 보고된다. 따라서 **비용 1,000,000원을 추가**하고 보고 이익에서 같은 금액을 뺀다.

미수수익: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. 미수수익 800,000원을 과소계상하면 당기 수익도 그만큼 적게 반영된다. 따라서 **수익 800,000원을 추가**하고 보고 이익에 같은 금액을 더한다.

기초상품: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서 구한다. 기초상품이 700,000원 적게 계상되면 **매출원가도 700,000원 적게** 계상되어 이익이 크게 보고된다. 기초상품을 바로잡아 매출원가를 늘리므로 보고 이익에서 700,000원을 뺀다.

기말상품: 기말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남은 상품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에서 차감한다. 기말상품을 400,000원 크게 계상하면 **매출원가가 400,000원 적게** 계상된다. 기말상품을 바로잡으면 매출원가가 늘어나므로 보고 이익에서 400,000원을 뺀다.

수정액을 만원 단위로 합하면 −100 + 80 − 70 − 40 = −130만원이다. 따라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,500 − 130 = 1,370만원, 즉 13,700,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14. ㈜서울의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₩10,000이며, 당기 법인세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. 이외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, 법인세율은 30%이다. 당기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얼마인가?

· 비과세 이자수익은 ₩2,000이다.
· 당기 미수이자 ₩4,000은 차기에 현금으로 회수된다.
· 자기주식처분이익은 ₩6,000이다.

① 이연법인세자산 ₩600
② 이연법인세자산 ₩1,200
③ 이연법인세부채 ₩600
④ 이연법인세부채 ₩1,200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미수이자 ₩4,000은 회계상 당기 수익이지만 세무상 차기에 과세되므로 **미래에 납부할 세금**이 발생한다.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₩4,000 × 30% = ₩1,200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이연법인세는 자산·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차이 때문에 미래에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법인세이다. 따라서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₩10,000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고, **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차이**를 찾아 계산한다.

비과세 이자수익 ₩2,000: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상 당기뿐 아니라 미래에도 과세되지 않는 영구적차이이다. 나중에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연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.

미수이자 ₩4,000: 회계상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세무상 차기에 현금을 회수할 때 과세된다. 당기 말 미수이자의 장부금액은 ₩4,000, 세무기준액은 ₩0이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₩4,000이다. 회수 시 미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세금을 더 내므로 **이연법인세부채**를 인식한다.

자기주식처분이익 ₩6,000: 회계상 당기손익이 아니라 **자본에 직접 인식**하는 항목이다. 이 처분이익 자체는 미래에 소멸하면서 과세소득을 변동시키는 일시적차이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한다.

보고금액 계산: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. 다른 세무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₩4,000 × 30% = ₩1,200이다.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₩1,200을 보고하며, 이는 ④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5. (주)서울은 주당 액면금액 ₩5,000인 보통주 100주를 ₩800,000에 유상증자하였다. 유상증자 시 (주)서울의 장부에는 ₩110,000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계상되어 있었고, 주식발생과 직접 관련된 원가 ₩50,000과 간접원가 ₩15,000이 발생하였다. (주)서울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?

① ₩625,000

② ₩640,000

③ ₩735,000

④ ₩750,000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액은 납입액에서 **주식발행 직접원가만 차감**한 750,000원이다.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계는 자본 내부의 조정이며, 간접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자본거래의 증가액 계산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.

계산 과정

1. 자본금과 발행초과액: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금액에 발행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 자본금 증가액은 5,000원 × 100주 = 500,000원이고, 납입액 중 액면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800,000원 − 500,000원 = 300,000원이다.

2. 발행원가의 처리: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된 원가 50,000원은 **자본에서 직접 차감**하므로, 발행초과액에서 이를 뺀 금액은 300,000원 − 50,000원 = 250,000원이다. 간접원가 15,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. 이는 손익을 통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만, 여기서 묻는 유상증자라는 자본거래의 증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.

3.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계: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을 차감하는 항목이다. 이번 발행에서 생긴 250,000원으로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 110,000원을 먼저 상계하면, 주식발행초과금은 250,000원 − 110,000원 = 140,000원 증가한다. 동시에 기존의 자본 차감항목이 110,000원 줄어 자본은 그만큼 증가한다. 따라서 기존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납입액에서 **다시 차감하지 않는다**.

4. 자본 증가액: 자본금 증가 500,000원,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140,000원,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소에 따른 증가 110,000원을 합하면 750,000원이다. 이는 납입액 800,000원 − 직접원가 50,000원 = 750,000원으로도 계산되며,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16. 다음 중 국가회계 재정운영표 양식 구조에서 재정운영 순원가의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?

① 관리운영비

② 비배분수익

③ 비교환수익

④ 비배분비용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비교환수익은 **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**. 재정운영표에서는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한 뒤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산출한다.

공통 해설

재정운영순원가는 재정활동에 소요된 순원가를 나타낸다.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한 원가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수익을 뺀 프로그램순원가를 출발점으로 삼는다. 여기에 **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, 비배분수익을 뺀다**. 따라서 이 세 항목은 모두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 반영된다. 이는 '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' 제25조제2항제2호의 산식이다.

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이다.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비교환수익 등은 **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한 다음 단계**에서 차감한다.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면 재정운영결과가 되므로,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하는 항목과 구별된다.

NoteBase

문 17. (주)서울은 2016년 3월 1일 기계장치를 ₩1,000,000에 취득하였다.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, 추정잔존가치는 ₩100,000이고 정액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한다. (주)서울은 2017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₩730,000에 처분할 경우,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익은 얼마인가?

① 감가상각누계액 ₩400,000 처분이익 ₩130,000

② 감가상각누계액 ₩450,000 처분이익 ₩180,000

③ 감가상각누계액 ₩400,000 처분손실 ₩130,000

④ 감가상각누계액 ₩450,000 처분손실 ₩180,000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300,000원이고, 처분일까지의 **16개월분 감가상각누계액은 400,000원**이다. 처분대금 730,000원이 장부금액 600,000원보다 크므로 **처분이익 130,000원**이 발생한다.

계산 과정

연간 감가상각비: 정액법은 **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**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. 취득원가는 1,000,000원, 잔존가치는 100,000원, 내용연수는 3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$\frac{1,000,000 - 100,000}{3} = 300,000$원이다.

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: 취득일인 2016년 3월 1일부터 처분일인 2017년 7월 1일까지의 감가상각 기간은 2016년 3~12월의 10개월과 2017년 1~6월의 6개월을 합한 **16개월**이다. 연간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은 $300,000 \times \frac{16}{12} = 400,000$원이다.

처분 시점의 장부금액: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. 따라서 1,000,000 - 400,000 = 600,000원이다. 잔존가치 100,000원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할 때 이미 반영했으므로 **장부금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**.

처분손익: 처분대금과 **처분 시점의 장부금액**을 비교한다. 처분대금 730,000원이 장부금액 600,000원을 초과하므로 730,000 - 600,000 = 130,00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.

감가상각누계액 400,000원과 처분이익 130,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18. 다음은 (주)서울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. 직접법으로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₩469,000, 2016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₩500,000이라면 2016년 말 포괄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?

구분	2016년 초	2016년 말
매출채권	₩188,000	₩215,000
대손충당금	₩9,000	₩10,000

① ₩3,000

② ₩5,000

③ ₩57,000

④ ₩59,000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매출채권 잔액과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대조하면 **대손처리액은 4,000원**이다. 이 금액만큼 줄어든 대손충당금을 보충하고 기말 잔액을 10,000원으로 맞추려면 대손상각비 5,000원을 인식해야 한다.

계산 과정

표의 매출채권은 2016년 초 188,000원, 말 215,000원이고, 대손충당금은 각각 9,000원과 10,000원이다. 대손상각비는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며, 대손충당금 잔액의 단순 증가액과는 다르다.

대손처리액 계산: 기초 매출채권에 당기 매출액을 더하고 고객에게 받은 현금을 빼면 188,000 + 500,000 − 469,000 = 219,000원이다. 실제 기말 매출채권은 215,000원이므로, 차이인 219,000 − 215,000 = 4,000원이 **현금 회수 없이 대손처리된 매출채권**이다.

대손상각비 계산: 충당금이 설정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이 함께 감소한다. 따라서 기초 대손충당금 9,000원에서 대손처리액 4,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5,000원이다. 이를 기말 필요 잔액 10,000원으로 맞추기 위해 **추가로 설정하는 충당금이 당기 대손상각비**이므로, 10,000 − 5,000 = 5,000원이다. 이는 ②의 5,000원과 일치한다.

NoteBase

문 19. ㈜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 A, B를 생산하고 있다. 회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으며, 회사의 활동 및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. 제품 A를 100개 생산하기 위한 직접재료원가가 ₩30,000, 직접노무원가가 ₩10,000이며, 재료의 가공을 위해 소요된 기계작업은 500시간, 조립작업은 200시간이다. 이렇게 생산한 제품 A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₩700이고, 매출총이익 ₩20,000을 달성하였다면, 제품 A의 제조를 위한 생산준비 횟수는 몇 회인가? (단,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없다고 가정한다.)

구분	원가동인	단위당 배부액
생산준비	생산준비횟수	₩50
기계작업	기계시간	₩15
조립작업	조립시간	₩10

① 8회

② 10회

③ 12회

④ 14회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과 직접원가를 차감하면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는 10,000원이다. 여기서 기계작업·조립작업 배부액을 빼면 **생산준비원가는 500원**이며, 1회당 50원씩 배부하므로 생산준비 횟수는 10회이다.

NoteBase

계산 과정

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각 활동의 원가동인 사용량에 단위당 배부액을 곱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. 표의 배부액은 생산준비 1회당 50원, 기계작업 1시간당 15원, 조립작업 1시간당 10원이다.

1. 제품 A의 매출원가: 기초·기말재고가 없으므로 생산한 100개를 모두 판매했으며, **제품 A의 총제조원가와 매출원가가 같다**. 매출액은 700원 × 100개 = 70,000원이고,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. 따라서 매출원가이자 총제조원가는 70,000 − 20,000 = 50,000원이다.

2. 제조간접원가: 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, 직접노무원가,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. 따라서 제품 A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50,000 − 30,000 − 10,000 = 10,000원이다.

3. 기계작업·조립작업 배부액: 기계작업은 500시간 × 15원/시간 = 7,500원, 조립작업은 200시간 × 10원/시간 = 2,000원이다. 두 활동의 배부액 합계는 9,500원이다.

4. 생산준비 횟수: 제조간접원가에서 다른 두 활동의 배부액을 제외한 10,000 − 9,500 = 500원이 생산준비 활동의 배부액이다. 생산준비의 원가동인은 **제품 수량이 아니라 생산준비 횟수**이므로, 이 금액을 1회당 배부액으로 나눈다. 생산준비 횟수는 500원50원/회=10회이며, ②의 10회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20.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상의 자산 및 부채 평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①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, 도시철도, 하천부속시설 등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,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.

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.

④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「공무원연금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**해당 자산의 차감항목**으로 표시한다. 해당 자산의 금액에서 사용수익권 금액을 빼는 형식으로 제시한다는 뜻이다.

선지별 해설

① X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0조제2항은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, 도시철도, 하천부속시설 등을 **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**고 정한다. 따라서 이러한 시설도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.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과 감가상각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.

② X: 같은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며, 발행수수료와 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**가산하지 않고 차감**한다. 지방채 발행으로 들어온 금액에서 이러한 비용을 뺀 금액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.

③ O: 같은 규칙 제49조제3항은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**해당 자산의 차감항목**으로 표시하도록 정한다. 차감항목이란 해당 자산의 표시금액에서 빼는 항목이므로, 사용수익권 금액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.

④ X: 같은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은 **「공무원연금법」 적용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**이다. 회계연도말 현재 이들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평가한다. 선지는 제외되는 지방공무원을 평가 대상으로 잘못 제시하였다.

NoteBase